



주요부서 노동조건 악화 심각 사회부 1년7개월 만에 9명 순감

연합뉴스 내 주요부서에서 인력순감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사측과 대의원들을 통해 부서별 인력증감과 노동강도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2년 8월 1일 이후 사회부 인력은 36명에서 지난달 말 현재 27명으로 모두 9명이 감소했다.

1년 7개월 만에 부서에서 4분의 1에 달하는 인력이 감축된 것이다.

문화부는 18명에서 14명으로 4명이, 정치부는 29명에서 26명으로 3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북한자료부와 총무부, 배차실, 뉴미디어개발부는 각각 2명씩, 인사교육부와 미디어전략팀, 경제부, 미디어과학부, 경기취재본부, 경기북부취재본부

등 16개 부서는 1명씩 인력이 순감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부 내에서도 인력 감축이 가장 심한 곳은 '자의 꽃'으로 불리는 사건팀이다.

사회부 사건팀은 2012년 8월 14명에서 9명으로 급감했다. 사건팀 캡과 바이스를 제외하면 모두 7명이 9개에 이르는 경찰서 라인을 나눠 맡으면서

주 7일 하루에 1명씩 밤샘 숙직을 하고 있다.

야근자는 다음날 쉬기 때문에 매일 평균 3개 라인이 비게 된다. 휴가나 출장, 파견, 타부서 업무협조 등이 겹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7명 중 야근자를 제외하고 토요일에

2면에 계속

'공감 노조' 제26대 집행부 출범

"공정보도 정신 지키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 것"

연합뉴스 노동조합 제26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오정훈(2009년 입사) 신임 위원장은 3월14일 본사 17층 다목적 홀에서 열린 집행부 출범식에서 "파업의 기억을 끝까지 지켜 공정보도 정신을 지키고 조합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소속부서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조합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전국언론노조와의 연대의 끈을 강화해 국가기관 통신사로서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기간에 '중책을 맡게 됐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파업의 경험이 저에게 신중함을 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진중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년5개월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넘긴 고일환 전 위원장은 "총파업 투쟁으로 연합뉴스 노조는 새롭게 거듭났다. 앞으로도 공정보도를 위해 일조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감 노조'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26대 집행부는 위원장·부위원장 선거에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투표율(72.3%)을 올렸다.

또 연합뉴스 노조 사상 첫 경력기자 출신 위원장과 첫 여성 사무국장(이울 사무국장)을 배출하는 기록을 세웠다.

신임 노조집행부는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전사원 경영설명회와 선임기자제 등 합의 2년째 미반영된 사항의 우선적 이행을 경영진에 촉구했다.

지난 26일 첫 집행부회의를 열어 조합원 사이의 소



제26대 노조 집행부. 왼쪽부터 김은정 여성부장, 김태균 교육부장, 서명곤 홍보부장, 고동선 총무부장, 오정훈 노조 위원장, 김상민 부위원장, 이울 사무국장, 양정우 쟁의부장.

통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증감에 따른 부서별 노동강도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임기 9개월을 넘긴 이병로 총국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4월 10일 이전에 실시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 공감 제26대 노조 집행부

- 위원장: 오정훈
- 부위원장: 김상민 이상학 (ICT 기획부, 강원본부)
- 사무국장: 이울
- 총무부장: 고동선 (네트워크사업부)
- 교육부장: 김태균 (국제뉴스3부)

- 쟁의부장: 양정우 (재외동포부)
- 조직부장: 김호준 (정치부)
- 조사부장: 권영전 (미디어과학부)
- 복지부장: 김종환 (콘텐츠센터)
- 홍보부장: 서명곤 (사진부)
- 여성부장: 김은정 (영문뉴스부)
- 지방부장: 이정훈 (경남본부)

○ 공정보도위원회

- 간사: 강훈상 (증권부)
- 부간사: 이윤영 (국제뉴스2부)

노설

‘공감’의 깃발을 든 신입 집행부

제26대 노동조합 집행부가 출범한 지 2주일째다. 첫 집행부 회의를 통해 조합원과 ‘공감’하는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처한 현실을 볼 때 조합원과 구성원들이 공감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엔 장애물이 많다.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역할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와 원칙도 안팎의 도전에 직면했고, 경영위기를 내세운 회사의 같짓자 행보에 콘텐츠 향상을 위한 구성원의 노력이 근로여건 악화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최근에 벌어진 뉴스와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적지않게 일어났지만 경영진이 예방노력과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뉴스와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연합뉴스가 뉴스와이의 대주주

이고 연합에서 파견간 여사원이 상당수인 만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진하거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입 집행부는 진상조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다.

또 연합뉴스 주주총회 2013년 회계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에 기부금으로 출연한 액수가 50%나 상향됐다. 건축경영을 앞세운 회사가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작년 회사 국정감사에서 외유성 출장으로 질타를 받은 뉴스통신진흥회는 당시 신학용 교육문화위원장의 요구로 올해 국감에 출석하게 되었다. 신사옥 차입금 등으로 회사가 어렵다고 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사측이 건축 경영을 이유로 뉴스와이 구성원에 대한 수당을 삭감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반발로 수당을 부활했다는 소식에는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

편집 경영분리와 공정보도 원칙 아래 노사합의로 도입된 편집총국장 제도는 이제 제2대 총국장에 대한 중간평가 신입투표를 며칠 앞두고 있다. 재임 11개월 동안 부당한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

고 균형잡힌 보도와 부서간 협업이 원활히 이뤄지게 했는지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짧은 2주 사이 사내에 많은 잡음들이 일었다는 사실을 볼 때 조합원과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지난할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한다. ■

경영성과 악화에도 뉴스통신진흥회 운영비 50% 늘려 신사옥 완공으로 부채 135% 급증

작년 한 해 연합뉴스의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됐는데도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에 지원한 운영비는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옥 완공으로 차입금이 본격 반영되면서, 연합뉴스의 부채는 135% 급증했다.

3일 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연합뉴스 순이익은 9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뚝 떨어졌다. 2012년 순이익은 101억원이었다.

연합뉴스의 순이익 급감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기부금’이 눈에 띈다. 작년 연합뉴스는 회사 지분 30.7%를 보유한 뉴스통신진흥회에 기부금 명목으로 23억8천만원을 출연했다. 2012년 15억9천만원에 비해 금액을 50% 늘렸다.

사측 관계자는 “연간 뉴스통신진흥회에 출연할 수 있는 재원 한도는 영업이익의 10% 이내인데, 올해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 작년분엔 올 상반기분을 당겨서 지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의 경영실적 악화는 주요 신문들의 실적 개선과 뚜렷이 대조된다.

2012년 404억원 순손실을 나타낸 중앙일보

는 304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가 25억원 순이익으로 돌아섰다. 두 신문사가 동시에 흑자 전환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순이익을 230억원에서 281억원으로 확대하며 ‘조중동’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 이는 비용으로 잡히는 TV조선의 지분법 손실에 대비한 적립액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

연합뉴스의 부채 총계는 2012년 538억원에서 작년 1천270억원으로 135%나 늘었다. 한 회사의 부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옥 이전에 따른 빚 부담이 큰 요소로 작용했다.

사측 관계자는 “신사옥이 완공됨에 따라 차입금이 2012년 140억원에서 급증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새로 짓는 건물은 건설진행도에 따라 차입금을 반영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한 시중은행에서 빌린 장기차입금은 현재 805억원에 달한다. 올해 75억원,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90억원을 각각 상환할 예정이다. 그리고도 460억원의 빚을 더 갚아야 한다. ■

1면에 이어

는 2명씩, 일요일에는 3명씩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1명당 매달 5차례 야근에 주6일 근무는 기본일 정도로 노동조건이 악화됐다.

연합뉴스의 사건팀 규모는 12~13명선을 유지하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물론 한국일보보다 적다.

사회부 행정팀도 10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줄어 현재 유례없이 환경부와 노동부를 1명이 담당할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팀은 8명 그대로를 유지했다.

문화부는 같은 기간 4명이 순감하면서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겸쳐서 담당하고 있다. 과거 3명이었던 방송팀은 2명으로 축소됐고, 이들 둘 마저 영화와 가요·팝 2진을 맡은 상황이다.

정치부도 정당팀에서 2명, 총리실 출입 1명 등 3명이 순감했다.

국제뉴스부는 부장이나 기획위원 특파원 내정 인력을 제외하고 3교대 근무를 도는 인력이 같은 기간 22명에서 20명으로 순감했고, 뉴스와이 파견자도 1명 생겨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 평기자 조근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고, 차장급 이상 인력은 야근과 주말근무 주기가 빨라졌다.

각 부서에서 순감된 인력은 10명 규모의 소비자경제부 신설과 2명 규모의 증권부 국제경제팀 신설 등에 활용됐으며, 연수나 특파원을 나가기도 했다.

12개 지역취재본부에서는 취재인력 고령화와 뉴스와이 방송 업무 부가로 인한 부하 증대, 사진취재 인력의 고질적 부족을 노동조건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



새 집행부에 바란다

해묵은 지역 고충에 귀 기울였으면

지역취재본부 조합원으로서 새로 출범하는 노동조합 집행부에 바라는 점을 고민하다가 연합노보를 뒤적였습니다.

2011년 6월 10일자 200호 노보의 1면 톱기사는 “몸은 지역에 있지만 우리도 연합뉴스다!”를 제목으로 걸고 ‘보도채널’, ‘지역상황과 본사의 인식’, ‘정보공유와 소통의 부재’를 소제목으로 나눠 지역취재본부원들의 고충을 다뤘습니다.

‘뉴스Y 출범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업무강도 강화로 지역취재본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본사의 인식 때문에 심리적 상실감이 크다’, ‘소통의 부재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 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나온 “남 빨아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 “지방에서 이달의 기자상이 몇번이나 나왔나?”, “특종은 지방지에 뺏기고 보도자료나 쓰고 있다” 등의 발언을 사례로 묶어 ‘지역에 대한 몰이해’ 소제목을 달고 ‘종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지 전채료, 낙후된 사옥, 지방 VJ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경기취재본부에 속한 4년차 조합원인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본부, 선배 조합원들의 고충은 이 글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닐 테지만 지역취재본부 조합원으로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집행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조합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대신해 곱은 자리에 기꺼이 나서준 노동조합 26대 집행부 선배들께 감사합니다.



최종호 경기취재본부

파업 기억, 추억으로 그치지 말아야

요즘 가까운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탄식하는 시간이면 자리가 파할 무렵 정리 코멘트가 항상 ‘노조가 해야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노동조합 집행부에 무엇을 바랄 자격이 있나 고민해보니 그동안 책임감 없이 모든 것을 미루지 않았나 생각해 자신이 없어집니다.

‘노조’가 유년기 먼 이야기에서 곁의 이야기를 지나 이제 나의 이야기로 바뀌었던, 정작 함께 손을 맞잡고 누르던 빛나는 경험은 바쁘게 침묵한 사이 어느새 추억이 되어버린 것도 같아 아쉽습니다.

최근 읽은 한 책에서 저자는 개인의 사적인 고통이 공적인 화제로 전환돼 논의되지 않는 현실에 한국 사회의 비극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연합뉴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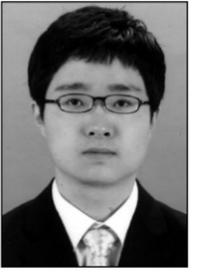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각자가 지닌 문제의식을 원동력으로 삼아 회사를 더 올바르게 만드는 길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의 목소리가 온전히 전해져 모든 집행부 구성원이 각자 같은 크기의 목소리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논의하길 기대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도 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집행부 구성원들께서 함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행복해야 자신도 행복할 수 있는 ‘한 배의 선원들’ 이니까요.

위원장님,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수습 시절 침상을 같이 했던 은정, 영진, 이런 멋진 친구들의 이름과 6년간 제게 일과 삶을 가르쳐주었던 선배들의 이름을요.

다행히 노조는 가까이 있습니다. ‘참○○’이 ‘카○’와 가깝듯이 10층에.



이상현 문화부

“한달 5일 야근 고충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33기 이슬기입니다. ‘새 집행부에 바란다’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원장 이하 선배들은 제게 모두 까마득한 선배들인데 무엇을 ‘요구’ 한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의 당당한 조합원이었습니다. 파업 중 수습 신분이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요상한 기사를 쏟아내야 했던 굴욕을 잠시 잊었던 것입니다.

조합원으로 노조에 바라는 게 있다면 현장에서 뛰는 일선 기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한 사회부 사건팀은 현재 캡·바이스를 제외하고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년반 전 만해도 캡·바이스를 제외하고 12명이었던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남과 광진 라인, 도봉과 혜화라인이 합쳐져 각각 일진 한 명씩 챙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진과 도봉에 각각 1진이 있고 영등포·종로·중부에 1·2진을 뒀었습니다.

‘그 많던 기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론사 중 기자가 가장 많다는 우리 회사에서 사건팀 인원이 줄어들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야근입니다. 오늘 4월 근무표를 받았는데 한 달 동안 야근이 5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낯밤을 새다 보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갈 때가 많습니다.

사건팀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더 힘든 근무 여건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열심히 할 때에도 우리가 타사에 비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현재 사건팀은 대부분의 일간지보다 인원이 적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중·동의 사건팀은 캡·바이스를 제외하고 9~10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팀 인원이 줄어드니 각종 사회현장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8개월 만에 5명이 줄어든 사건팀 인사발령 첫날, 철도파업이 터지면서 일은 배로 늘었고 낮에는 라인을 챙기고 밤에는 잠도 못자고 뺏치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슬기 사회부

최초 외국인 조합원 “균형잡힌 대항권력 됐으면”

국제국 다국어뉴스부에 2009년 입사한 자비에 발데루(Xavier Baldeyrou)입니다. 며칠 전 다른 외국인조합원과 함께 연합뉴스의 노조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조합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와 동료들을 받아 준 노조와 집행부에 감사합니다.

노조 가입까지 오래 망설였습니다. 연합에 입사하기 전 오랫동안 기업에서 일했고 전통적으로 노조 역사가 긴 프랑스 국적이지만 개인적으로 노조 가입은 처음이었습니다.

노조의 목적은 여러 사람이 가진 공동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라 봅니다.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들에 맞설 수 있는 대항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에서는 노조가 대항권력입니다.

고용 불안정은 한국인 사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근심거리입니다. 지금보다 근로여건이나 계약 조건이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 회사에서 외국인 사원의 지위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사원들의 업무 참여도를 높이고 재량권을 넓히면 일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집니다. 이는 회사에도 좋은 일입니다. 다국어뉴스부 출신인 신입 위원장께서 이와 관련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국어뉴스부는 2012년 파업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면을 빌어 노조가 당시 베풀어준 지지와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 노조가 대항권력 역할에 충실해 회사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노조가 연합뉴스 조직의 진보를 돕고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불어전문 한글요약본)



자비에 다국어뉴스부

지금까지 제 ‘요구’가 듣기 거북하고 버릇없다고 느끼셨다면 철없는 막내의 투정으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노조 집행부가 아무것도 모르고 마구 떠들어대는 막내 기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위 “지방선거 보도기준 마련해야 · 양비론 경계”

6·4 지방선거 선거보도점검회의 3월28일 가동

연합뉴스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지난달 28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선거보도점검회의 겸 3월 송고분에 대한 월례점검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보도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2012년 노사 제도개선 특위의 합의에 따라 전국단위 선거 3개월 전부터 1주일 단위로 선거보도 점검팀을 가동한 데 따른 첫 회의다.

회의에는 이병로 편집총국장, 엄남석 지방국장, 이유헌 정치담당부국장, 김경석 경제담당부국장, 한기천 사회담당부국장, 강훈상 노조공보위 간사, 이귀원 기획지회장, 이울 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노조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90일 전인 지난 3월6일 이후 연합뉴스가 내보낸 지방선거 관련 기사

1천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인 정쟁구도나 정치공방, 단편적인 출마선언, 출판기념회 상황과 같은 기사들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노조측은 지방선거 관련 기사 중 일부 기사는 민원성으로 추정될 정도로 기사 가치보다 기사길이가 과도했고, 정책비교나 공약검증 등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기사는 거의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오히려 선심성 공약이 봇물이라며 모든 공약을 싸잡아 비난한 기사만 나갔다”면서 “선거보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양비론과 기계적 균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붙여 국

민에게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 만큼, 보도 방향 설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국장측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면서 “지사별로 각급에서 민원이 쇄도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그동안 무감각하게 다룬 부분이 있는지,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총국장측은 이어 “아직 본격적으로 여야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비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여야 후보가 정해지면 좀 더 알찬 공약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 우수상에 박철홍 조합원의 ‘〈기자수첩〉윤진숙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품격’



코막는 장관 (여수=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오전 전남 오진 원유 유출사고로 인한 기름띠가 밀려온 전남 여수시 신덕마을을 방문해 주민의 항의를 들으며 코를 막고 있다. 해당 마을은 1995년에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로 이번 기름 유출로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2014.2.1

의 호화생활 관련 보도’와 김선호(부산 취재본부) 조합원의 ‘후배 구하려 붕괴 현장 또 뛰어든 학회장 ‘살신성인’ 기사를 각각 이달의 참글상 장려상으로 뽑았다.

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50만원이, 장려상에는 상패와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3월 송고분에 대한 이달의 참글

상은 4월 10일(목)까지 각 공보위원이나 노조(nojo@yna.co.kr)로 제출하면 된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연합뉴스 지회는 지난달 25일 월례 정기회의를 열어 박철홍(광주전남 취재본부) 조합원의 ‘코막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6건의 사진과 〈기자수첩〉 윤진숙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품격’ 기사 외 2건을 이달의 참글상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진과 기사는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현장에서 윤진숙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처음으로 지적해 이후 해명과 잇따른 실언으로 윤 장관의 경질을 불러오는 시발점이 됐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와 지회는 또 박성우·전승현·손상원(광주전남취재본부) 조합원의 ‘수백억 벌금 미납 대주그룹 회장 해

편집총국장 신임투표 7~9일 실시

이병로 편집총국장에 대한 중간평가 격인 신임투표가 7~9일 실시된다.

연합뉴스 노조는 작년 6월 1일 취임한 이 편집총국장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 중간평가를 위해 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편집총국장의 임기는 1년 6개월로, 노사는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편집총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임기 절반을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완료기로 합의한 바 있다.

투표는 총국장 산하 편집국, 지방국, 국제국 기자직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과반투표에 과반 찬성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재작년 3.15 파업타결 조건으로 편집권 독립원칙을 단체협약에 명기하고, “회사는 편집권 독립을 제도로 보장함으로써 경영진의 압력으로 인한 공정보도 정신의 훼손을 방지한다”고 합의했다.

편집총국장은 독립된 편집권을 바탕으로 공정보도를 시행하는 편집인이다.